

 금융위원회	보도설명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보도일시	배포 시	배포일시	2023. 4. 3.(월)
담당 부서	금융산업국 은행과	책임자	과 장 강영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 노소영 (02-2100-2954)

금융위원회의 은행채 발행 자제 권고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- 4.3일자 더벨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더벨뉴스는 4.3일 「CS 상각충격, 코코본드 흥행위해 은행채 자제하라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금융당국이 크레디트스위스(CS)의 코코본드(조건부자본증권) 상각 조치 여파로 코코본드 투심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… 그 중 하나로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.”
 - “최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을 불러 모아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.” 는 등의 내용을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시중은행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바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